

지능과 윤리



진성오 소장의
신비한 심리사전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매우 지적인 인물이다. 전도유망한 대학생이고, 세상의 구조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위대한 인물은 일반적인 도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의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탐욕스러운 노파를 살해한다.

그의 생각엔, 한 명의 무가치한 그리고 약한 생명을 없애고 많은 사람을 돕는다면, 그건 정당한 '계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뒤, 그는 점점 양심의 가책과 고통에 시달린다. 이성은 "논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감정과 도덕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결국 그는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벌을 받는 길을 택한다.

윤리적으로 볼 때, 라스콜니코프는 지능이 뛰어나지만 어쩌면 '윤리적 공감'이 결여된 인물이다. 그가 옳고 그름을 머리로는 판단했고, 타인의 고통을 '숫자'처럼 계산했다고 볼 수 있다.

지능(intelligence)은 보통 문제 해결 능

력, 추론, 암기력, 언어 능력 같은 인지적 능력을 말한다. 반면 윤리(ethics)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엔 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더 능하다고 한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도 "전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라며 논리를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똑똑한 머리가 반드시 바른 선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윤리적인 판단에도 높은 사고 능력은 필요하다.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는 공감 능력,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통찰력, 규칙의 의미를 이해하는 논리성 등은 전부 일종의 '사회적 지능'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다. 즉, 윤리란 윤리적 의사 선택일 수 있다. 도덕률처럼 상황 별로 정해진 답이 없는, 즉 답을 찾아가는 모호함을 유지하면서 윤리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그 자체가 아닐까?

오늘날 AI가 인간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다. 기술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똑똑함이 인간다운 가치를 향하고 있는지 계속 질문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도, 그것이 사람을 해치거나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다면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공 지능을 개척한 천재 중 한 명이 튜링이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지 혹은 인간 지능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안한 방식이 튜링 테스트이다. 즉, 어떠한 인간적인 단서 없이 대화-보통 글이다-만으로 상대가 로봇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대상을 인간성이 있는 것으로 보자는, 다소 기능적인 방법이다.

이제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하는 AI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때 통과한 AI가 인간인지 여부보다 인간 중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서 아이러니를 느낀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기계적인 작업 뿐만 아니라 AI에게 인간이 윤리를 배우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궁금하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한국의 '스페이스'를 지킬 방법은



기지수첩
이혜민 (산업부)

"스페이스가 흐르는 곳에서 권력이 탄생한다." 영화 '듀: 파트 2'에서 나오는 이 명제는 우주를 지배하는 귀중한 자원 '스페이스 팰라지'의 가치를 상징한다. 아라키스 행성의 모래 사막에서만 채굴되는 스페이스는 우주항해를 가능케 하고 초인적 능력을 부여한다.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스페이스'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팅까지 미래 기술의 심장에는 반도체가 있다. 영화 속 여러 세력이 스페이스를 두고 충돌하는 모습은 오늘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닮아 있다.

영화에서 황제와 하코넨 가문이 스페이

스를 독점하려 한 것처럼,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으로 약 520억달러의 보조금과 25%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칩 법'으로 430억유로를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점유율을 9%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 대만은 TSMC를 앞세워 경쟁 우위를 지키고, 중국은 10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 고액 연봉과 유연한 근로환경으로 인재를 흡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반도체 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노동계와 정치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반도체 특별법이 수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핵심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다. 야당은 대기업 중심 지원책이라며 중소기업 배려를 요구하고, 여당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산업계는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노동권 침해'라며 반대한다.

민주당은 최근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나, 정작 핵심 조항인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유연화 조항은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전이 없었고, 3월 임시국회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영화에서 폴 아트레이디스는 "두려움은 정신을 죽이는 작은 죽음"이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 정치 이익을 넘은 과감한 결단이다. 반도체 산업은 한 번 주도권을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승자독식 시장이다. 미래 위에 세운 성은 쉽게 무너진다. 정쟁 속에 흔들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지킬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다.

/hyem@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1일 (음 3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기대가 너무 높아 만족도가 낮다. 48년생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주어진다. 60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어 발전이 더디다. 72년생 여럿의 견해가 다들 옳지만 의견 통일. 84년생 가뭄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고 지출.



37년생 발등을 찍는 건 도끼가 아니냐. 49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식구들을 잘 챙기자. 61년생 풍요가 기대된다. 73년생 맑은 거울과 조용한 물처럼 꾸준히 저축을. 85년생 비대해진 자이는 자신을 위해 애쓰려한다.



38년생 주변을 확고히 해야 인연도 이어진다. 50년생 실력이 부족하니 마음이 편치 않고 몸은 힘들다. 62년생 요행수를 바라지말자. 74년생 덕을 베푸는데 스승이 따로 있겠는가. 86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견어 간다.



39년생 인생이 어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51년생 마지않아 새벽이 올 것이다. 63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마라. 75년생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아 현재 고독한 것. 87년생 십 년간 모아 둔 비상금이 적절하게 쓰인다.



40년생 불만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말아야 결과가 무난하다. 52년생 불을 보듯 뻔한 거짓말에 조심하자. 64년생 기사화이다. 76년생 건드리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격은 아닌지. 88년생 하나를 뿌리고 두 개를 얻는 날이다.



41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라. 53년생 머리만 민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65년생 달빛이 비치는 것을 훔쳐 삼아 공부. 77년생 욕심을 내서 주식투자는 빚만 지고 어려워진다. 89년생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길이 열린다.



42년생 직원을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54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틀어진다. 66년생 시작은 신용에서 비롯되니 약속을 어기지 마라. 78년생 직장에서 실력 없는 요령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90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격.



43년생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55년생 주변에서 고마움의 선물이 들어온다. 67년생 남중지추라 했으니 분발하라. 79년생 누구나 자신의 단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91년생 이간질은 행복을 깨뜨리는 사건이 되니.



44년생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지 마라. 56년생 일시적인 알은치는 멀리하도록. 68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주변에서 인기. 80년생 고양이에게 방을 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진. 92년생 나이를 떠나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45년생 옛 연인을 꿈에도 그리워 잊기가 어렵다. 57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는 격이니 원하는 바를 무사히 달성한다. 69년생 재주 기술이 다양하다. 81년생 분기하니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다. 93년생 삶은 공존을 해야만 영위가 되니.



46년생 미련해 보이나 신용이 우선. 58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에 맞출 것. 70년생 싫다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도록. 82년생 흘러간 강물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했다. 94년생 남이 보기에는 요행수로 성공한 것 같으나 진정으로 노력을 했다.



47년생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간직하여 진행하자. 59년생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자. 71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니 기쁜 날. 83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다. 95년생 괴로움과 고초를 겪은 다음 수준에 도달되면 결과를 얻는다.



김상회의四季 부자에게 배워라

복 중에서 제일가는 복은 재물복이다. 재물이 없으면 사는 게 힘들다.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의 하나로 꼽는 게 노년 빈곤이다. 그런데 빈곤은 나이와 관계없이 좋지 않다. 돈 없이 빈한하게 사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 힘든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건 바로 재물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부자 되기 유행이 번지는 건 사는 게 힘들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부자가 되는 것도 공부 필요하다. 부자 되는 공부는 실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발자취에서 배움을 얻어야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장사의 신으로 불렸던 상인 집단이 있다. 바로 개성상인이다. 개성상인은 고려와 조선 시대에 개성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했는데 당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까지 장악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다. 그들은 인삼과 홍삼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복식부기를 활용했으며 금융 제도까지 구축하면서 개성상인이라는 상징적인 용어까지 만들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도전이다. 개성상인은 고려의 사대부 계층과 지식인 출신이 많았다. 조선왕조가 고려의 사대부들을 내쳤을 때 공부만 하던 이들은 당장 먹고살 길이 없었다. 그러자 붓을 잡던 손으로 기술을 익히고 장사를 시작했다.

생전 해보지 않았던 힘든 일에 도전한 그들은 막대한 부를 일궜다. 두 번째는 차별화다. 기술을 익히면 같은 업종의 상인보다 월등한 실력이 되도록 연마했다. 개성상인이 만드는 가죽신은 권문세가에서 미리 돈을 가져다주면서 주문을 할 정도로 품질이 좋았다. 세 번째는 기본에 속하는 절약이다. 절약하는 것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절약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4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6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